

“시는, 부재를 통한 존재 확인 과정”

이서영 시인 첫 시집 ‘안녕 안녕 아무 꽃이나 보러 가자’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시 모임 활동, 심리·직업상담도

“내게 시란 거기 나 혹은 당신이 있는지 더듬어 보는 거예요.”

시인들마다 시를 각기 다르게 정의한다. 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삶의 행로를 걸어왔느냐에 따라 그 규정은 달라진다.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거기에는 시를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가 투영돼 있기 마련이다.

이서영 시인은 ‘더듬어 보는 것’이라고 했다. 부연하자면 나와 타자가 있는지 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일 테다. 존재의 확인이자 존재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한 구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듯하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21) 출신 이서영 시인의 첫 시집 ‘안녕 안녕 아무 꽃이나 보러 가자’ (파란)을 펴냈다.

등단 1년 만에 창작집을 펴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된다. 혹은 등단 이전부터 써온 작품을 그동안 손질하고 퇴고했을 것도 같다. 어떤 식이든 문단에 나온 지 1년 만에 작품집을 출간한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시에 대한 ‘진심’이 있다는 사실일 게다. 시집 출간 소식을 전해오는 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작년에 등단했는데 무슨 시집을 벌써 냈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시인은 그러면서 8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그때 너무 후회를 해 많이 울었다는 거였다.

그는 “이제 혼자 남으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서 또 출연하셔시면 정말로 후회될 것 같다”며

“자식으로서 기쁨을 드리고 싶어 서둘러 시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썼던 시를 묶어서 빨리 빨리 내버리고 새로운 시를 쓰고 싶다”며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로운 시 쓰기를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부재를 통한 존재의 확인 과정이다. 유성호 평론가가 “무엇에 잡혀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몽클의 서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다수의 작품의 모티프가 상실이나 부재한 곳에서 포착된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몽클을 서랍 속에 넣어 두고 부를 기회를 엿보았지 가끔 사람들 앞에서 여기 몽클이야 자랑하고 싶었으나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어 몽클이 아닌 것을 몽클이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한 것 답답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심정을 몽땅 거러내 게 바로 몽클이라네...”

시 ‘몽클’을 읽다보면 절로 몽클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차마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서랍 속에 넣어 두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 했던 시절의 풍경이 스치듯 지나간다. 화자의 내면 풍경일 수도,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일 수도 있



이서영 시인



겠다. 시인은 시를 쓸 때 이 게 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일단 쓰고 싶은 순간과 마주할 때 그것이 나에게 건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이다. 얼핏 그의 말에서 위즈워드의 시에 대한 정의, 즉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라는 표현이 환기된다. 낭만주의 관점일 수도 있지만, 이 시인의 작품 경향은 더 감각적이고 회화적이며 미미적이다.

신춘문예 등단 이후 그는 ‘시산맥’ 등단패와 광주전남작가회의에 가입해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펼쳤다. 개인적으로 함께 시를 쓰는 분들과 시모임을 갖고 조금이라도 시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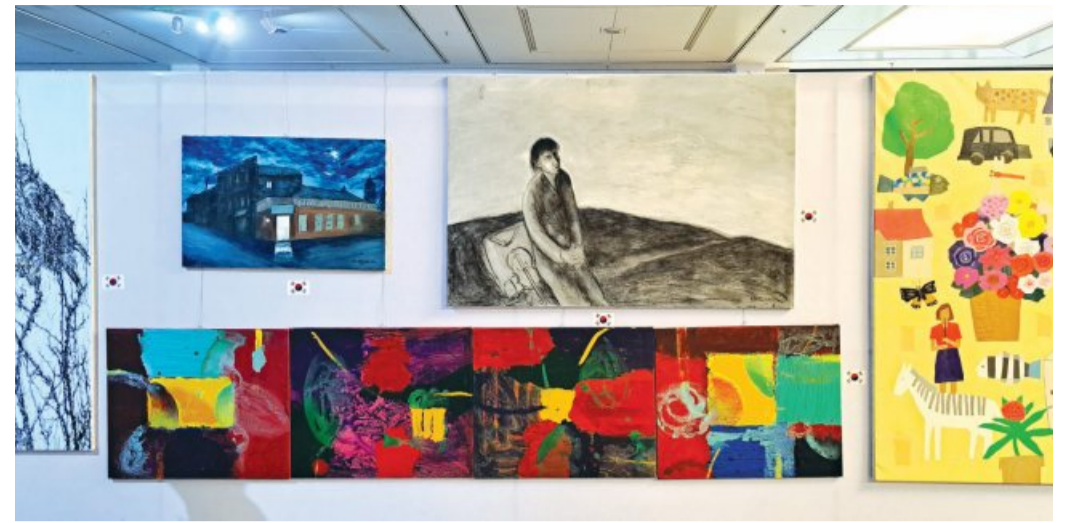
시집이 나오고 얼마 안 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시집이 파란파란할 때 축하모임을 하자”는 지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문정 시집에 함께 공부했던 분들 30여 명이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식사하고 차 마시고 시 읽으며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그날 아침 눈이 펄펄 내려 길이 불편했지만 분위기는 ‘시집 발간 축하를 아리는 눈꽃’이라고 모두 행복했습니다.”

시 쓰는 일 외에 그는 상담심리도 하고 있다. 전남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다. 7년 전부터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상담을 일주일에 1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 내에 시를 접근해’ 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이호국 작가는 트레이드 마크인 자작나무를 주제로 한 ‘나들이’를, 이준필 작가는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행복한 하루’를 출품했다. 그밖에 채종기 작가는 마대 위에 작업한 추상 작품 ‘상향’을 전시한다.

참여작가들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2022년 베트남-한국 민족 문화의 정수 만남’전에서 만나는 광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

‘베트남-한국 민족 문화의 정수 만남’

한희원·채종기 등 양국 작가 23명 참여...국립하노이박물관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이를 기념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중이고 광주 은암미술관에서도 양국 작가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행 그리고 공명’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번에는 광주 지역 작가들이 베트남을 방문, 현지 작가들과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 16일 개막해 내년 3월까지 열리는 ‘2022년 베트남-한국 민족 문화의 정수의 만남’전이다.

베트남-한국 외교관계 30주년과 베트남 독립 77주년을 기념해 국립 하노이 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광주와 서울, 베트남 작가 23명이 참여했다.

광주에서는 한희원, 임종호, 이준필, 이호국, 채종기 작가 등 5명이 참여해 각자 3-5작품씩을 선보였다. 한희원 작가는 풍테로 작업한 ‘이방인의 소묘’를, 임종호 작가는 인물과 자연, 동물이 어우러진 ‘한나월 풍경’ 등을 전시한다.

또 이호국 작가는 트레이드 마크인 자작나무를 주제로 한 ‘나들이’를, 이준필 작가는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행복한 하루’를 출품했다. 그밖에 채종기 작가는 마대 위에 작업한 추상 작품 ‘상향’을 전시한다.

참여작가들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에 머물렀고 16일 열린 기념식과 전시 개막식에도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우유엔 짜이 대학과 베트남-한국 우호협회가 주최했고 광주 작가는 우유엔 짜이 대학 총장 겸 이사장이자 베트남-한국 우호협회 부회장이던 응웬 띠엔 루안 박사가 초청했다.

미술에 대한 관심과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그는 베트남 작가 20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 방대한 소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를 방문하기도 한 그는 광주 예술의 거리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한희원 작가는 “베트남은 문화, 역사,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큰 나라인데 이번 방문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아직 현대미술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회화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화려한 색채감이 눈에 띄는 작품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17세에 월남전에 참여한 소년병 출신 응웬 띠엔 루안 총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전시는 양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보고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라며 “전시를 기회로 관심이 확산돼 폭넓은 문화예술의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우호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열두살 소년,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이민아·지은지 공동 ‘어느 날, 노비가 되었다’ 출간

열두살 소년 시혁이는 어느 아침에 조선 시대로 넘어가고 만다. 아빠의 기일 날 추모 공원 근처에서 반짝이는 흰 돌맹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긴 일이다. 사실은 그날 밤 휴대 폰 게임을 하다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대나무 숲 한가운데였다. 시혁이가 주운 흰 돌맹이의 정체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돌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로 타임 슬립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동화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 출신 이민아 동화작가와 지은지 동화작가가 펴낸 ‘어느 날, 노비가 되었다’ (2권·지학사아르볼)는 작가의 상상력과 현대의 과학 지식이 결합된 작품이다.

동화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된 타임라인을 매개로 펼쳐진다. 특히 소년이 어느 날과

거로 회귀해 조선시대 노비 개똥이가 된다는 설정은 사뭇 이색적이다. 고 대감댁 노비라는 상황 설정은 흥미로우면서도 웃음을 유발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래는 세탁기가, 청소는 청소기가, 밥은 밥솥이 해주던 것을 바라만 보던 시혁이었다. 그런데 노비의 신분이 되자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 과학과 발명품으로 편리한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삶을 더 누릴 수 없다.

이야기의 무대는 한양 근처의 천석 마을. 시혁이는 노비들의 밥상을 보며 학교 급식을 떠올리고, 고구마를 보며 고구마 피자를 떠올린다. 그리고 초롱이, 팔복이 등 여러 인물을 만나면서 오해와 갈등도 겪는다.

작가들은 시혁이의 시선을 통해 과거 우리 조



상들의 삶의 모습과 생활상을 보여준다. 부조리한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처지를 이야기 속에 융해시켜 아이들에게 신분제도의 부조리함을 느끼도록 주안점을 뒀다.

무엇보다 군데군데 카툰과 삽화를 배치해 보는 맛, 읽는 맛을 더했다. 웃음과 과학 지식이 한권에 담겨 있어 책을 읽는 도미를 선사한다.

한편 이민아 작가는 광주 풍양고를 졸업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중학독서평설 ‘꿈꾸는 과학의 세상 뒤집기’ 연재에 참여했다. 지금까지 ‘누가누가 더?’ 등을 펴냈다.

지은지 작가는 연세대 신소재공학을 전공했으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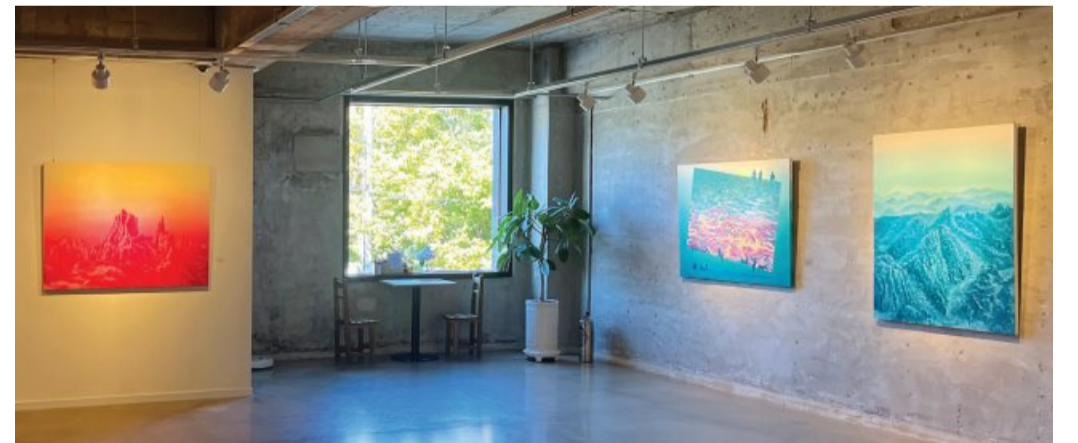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국립하노이박물관

영암 월출산의 다채로운 풍경

최인경 개인전, 31일까지 장성 아인미술관



장성 아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최인경 개인전.

‘색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월출산.’

서양화가 최인경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장성 아인미술관에서 열린다.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인 ‘Digilog(디지로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최 작가는 고향인 영암 월출산을 소재로 한 작품 등 다양한 그림을 선보인다.

대표작인 ‘Digital wolchul mountain’ 시리즈는 월출산을 픽셀로 표현한 작품이다. 아날로그 소재와 디지털 형상을 조합해 화면에 배치하는 작업을 지속해온 그는 월출산 등 자연 풍광을 디지털 픽셀과 다양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했다.

최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3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전시 기간 중에는 최인경 작가 작품으로 컬러링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컬러링을 완성하고 1층 직원에게 보여주면 작가의 엽서와 스티커 세트를 증정한다. 매주 수·토·일요일 오후 2시~4시에는 전시 해설사의 설명도 진행된다.

장성댐 미락단지에 위치한 아인미술관은 카페와 미술관,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집숍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황룡강을 바라보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연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구례 출신 정지아 작가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3위

김연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가 올해 소설가들에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으로 꼽혔다.

교보문고는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2022년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김연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모두 1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공동 2위는 총 7표를 받은 김지연 작가의 ‘마음에 없는 소리’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이 차지했다.

공동 3위는 6명의 추천을 받은 임선우 작가의 첫 소설집 ‘유령의 마음’으로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선택을 받았다. 정 작가의 ‘아

버지의 해방일지’는 1990년 발표한 ‘빨치산의 딸’ 이후 무려 32년만의 장편소설로 전직 빨치산 아버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3일간의 시간 속에서 해방 이후 70년 현대사 질곡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유쾌한 유머와 감동으로 그렸다.

5명의 추천을 받은 4위는 이미상 작가의 ‘이중 작가 초롱’, 5위는 4표를 받은 이기호 작가의 연작 짧은 소설집 ‘눈감지 마라’가 차지했다.

한편 ‘2022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리스트는 소설가 약 90여 명에게 추천을 의뢰해 답변을 준 50명의 추천 도서를 모아 정리했다.



소설 추천은 2021년 12월 출간된 소설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한정했다. 소설가들이 추천한 책은 총 97권이며 중복으로 추천받은 순으로 리스트를 정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